

월요논단



남동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예비역 준장

의료대란의 교훈

20일,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는 걸로 반대 의사 표현을 하면서 커다란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2000명을 늘리기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의료대란으로 국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의료대란의 발생 원인이나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견 대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겪은 코로나와 이번의 의료대란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의료체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가까운 미래에도 어떤 형태든 이와 같은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예측은 이제 일반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체계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 미래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필자가 제안한 정책이 현 상황에 매우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바로 제주도에 군 병원을 건립하자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군부대 인근에 군 병원이 존재하지만 육·해·공·해병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에만 없다. 제주도의 민간 의료지원 체계가 다소 미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도 그렇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도내 의료 시설 및 인력 보강이 가능한 군 병원의 필요성을 절감

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에서도 군의관 지원 및 응급실 개방 등 위기관리에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군 병원 건립 시 현지 군부대 의료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제한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나 의료대란 등 위기 발생 시 도내 의료시스템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군 병원 시설 및 의료 인력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와 해군(제7기동전단) 간 도내 군 병원 건립과 관련해 중장기적 정책 논의가 시작될 다시 한번 제안한다. 해군의 부대 발전 계획상 2025년에 현재의 제7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격상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제주도와 해군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적 이슈가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과업까지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 지난 4년간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던 코로나 위기를 잘 헤쳐오면서 이제 좀 여유를 찾자 싶었는데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몹시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월 1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결국 지난 2월

사설

올해 4·3추념식에도 윤 대통령 불참하나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한 적이 있지만 이같은 전망이 나오면서 2년 연속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2년 5월 대통령령에 취임한 후 이듬해 4·3 추념식에는 방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현재 도내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한 가운데 불참할 것으로 보여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무거운 기대를 실추했다. 이에 따라 올해 4·3 추념식에는 한 총리가 참석해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도와 도내의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을 건의해 왔다. 오영환 제주지사는 최근 4·3 추념식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4·3 추념식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무산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이자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의 첫 방문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당시 윤 대통령은 4·3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불참이 확실시된다. 대통령 경호실이 아직까지 4·3 추념식이 거행되는 4·3평화공원을 찾지

열린마당

“담뱃불 조심하세요”



고광인 제주소방안전본부 광역화재조사단

봄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산불·들불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또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156건의 들불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서는 부주의가 81.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주의 중에서는 소각 행위 26.3%, 담배꽂초 18.6%, 화원 방치 16.7%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광

역화재조사단은 지난달 27일 산과 들을 가상해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밝히고자 재현실험을 실시했다. 낙엽 및 잡풀더미 위에 담뱃불 투척한지 13분 후, 열이 축적돼 연기가 발생하고 탄화가 진행되다가 불꽃연소로 전환됐다. 최고온도는 1048℃까지 상승했다. 담뱃불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담뱃불 화재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산행이나 야외 활동 시 가급적 담배를 휴대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담배꽂초는 반드시 불이 꺼진 상태로 버린다. 셋째, 재떨이는 비연소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 넷째, 화재 예방 교육과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다. 봄철 건조한 기후는 화재에 더욱 취약하므로 모두가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욱 안전한 제주가 구현되리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여야, 4·3추념일 당일 선거운동 중단

“당리당락 떠나 추모하는 날” 황토 어싱 광장 벤치마킹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식을 맞아 여야가 추모분위기를 고려해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선언해 눈길.

3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4·3 추념식 당일 국민의힘 도당과 각 후보 캠프는 일체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4·3에는 양당이 상호비방 및 정치공세도 전면 중단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

이날 더불어민주당 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맞아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용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면서 “당리당락을 떠나 4월 3일 하루는 4·3유족, 도민들과 함께 추모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서귀포시가 혁신도시 우수저류지를 활용해 만든 시민건강 시설인 ‘황토 어싱 광장’에 대한 전국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등 10여 명이 현장을 방문.

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울산 방문단은 황토 어싱 광장 조성 과정, 시설 운영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기 내도했는데 “사소한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소감.

서귀포시는 올해 2억 원을 들여 계절별 초화류를 심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완할 예정으로 “전국 최초 광장형 황토 공간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청정 건강도시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강조.

제주 관광객 실태 조사에 그쳐선 안 된다

제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가운데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은 지속되고 있다. 오랫동안 지적돼오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더욱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관광객들은 여행 경비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불만족사항은 비싼 물가였다. 1인당 지출경비 중 식음료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쇼핑비는 채 10만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소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전인 2019년에 비해 개별 여행과 부분패키지여행은 증가한 반면 완전패키지여행은 감소했다. 개별 여행이 증가하면서 택시, 버스, 렌터카를 이용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면세점 대신 로드숍 쇼핑과 함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행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세대 교체로 인해 소비와 쇼핑 등에서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중 개별여행객이 전체의 84.1%를 차지했고, 완전패키지여행 13.9%, 부분패키지 여행 2.0%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번 조사결과에서 비싼 물가문제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패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는 재방문을 제고 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외국인 관광객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절실했다. 관광업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미래를 내다보는 관광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결과로 요약할 수 있다.

부고

고한철 어머니 김해김씨 원희(향년 89세)께서 서기 2024년 3월 30일 오전 4시 35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4년 3월 31일(일요일)
- ▶ 발인일시: 2024년 4월 1일(월요일) 오전 6시 30분
- ▶ 발인장소: 중앙병원장례식장 2분향실
- ▶ 장 지: 양지공원→낙천리 선영

- | | | | |
|-----|------|-----|-----|
| 아 들 | 고 한철 | 며느리 | 문영자 |
| | 영철 | | 박주현 |
| 딸 | 고정희 | 사 위 | 오수미 |
| 손 | 고희주 | | |
| | 상운 | | |
| | 지형 | | |
| | 지운 | 손 서 | 김태겸 |

※ 연락처: 고한철 010-8663-1868
고영철 010-8660-2209
문영자 010-8662-2209
박주현 010-3690-2208

부고

조종범(삼성중공업 상무)·상범(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아버지 한양조공철남(향년 81세)께서 서기 2024년 3월 31일 오전 11시 42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4년 4월 1일(월요일)
- ▶ 발인일시: 2024년 4월 2일(화요일) 오전 9시 40분
- ▶ 빈 소: 김영농협 정례문화센터
- ▶ 장 지: 양지공원→구좌읍 덕천리 가족묘지

부 인 신순덕

- | | | | |
|-----|-----|-----|-----|
| 아 들 | 조종범 | 며느리 | 김영숙 |
| | 상범 | | 김우정 |
| 딸 | 조아라 | 사 위 | 홍국녕 |

※ 연락처: 조종범 010-9915-3108
조상범 010-4272-4077
조아라 010-2229-7977
김영숙 010-9307-3108
김우정 010-4282-4077
홍국녕 010-8660-797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용이(대국해저관광주식회사 회장)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4월 1일

- | | |
|-----|-------------|
| 배우자 | 오은진 |
| 아 들 | 김강현 손 자 김민수 |
| 며느리 | 박성희 손 녀 김나운 |
| 딸 | 김지아 김유진 |
| 사 위 | 박도현 외손녀 박수인 |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곡산강씨 응숙(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4월 1일

- | | | | |
|-----|-----|-----|------|
| 남 편 | 강두선 | 며느리 | 부 선순 |
| 아 들 | 강성준 | | 김춘옥 |
| | | 성 훈 | 진영선 |
| | | 성 완 | 김미경 |
| 딸 | 강영애 | 사 위 | 이경은 |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

당 회사는 2024년 3월 21일 주주권원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사오니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게제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起苑綜合建設 株式會社
제주시 한라대로 86, 301호(노형동)
청산인 강 상 순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의사
616-08-85402